11/17/19

설교 제목: 겟세마네 기도와 사명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4 장 32-42 절

(막 14: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막 14: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막 14: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막 14: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절관주] 마 26:39, 요 12:27

(막 14: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절관주] 롬 8:15, 갈 4:6

(막 14: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14: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막 14: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막 14: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 14:41)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막 14:42)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성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막 14:26)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막 14: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울창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름대로 당시 이곳에서 감람유를 짰습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종종 기도를 하시기 위해 이곳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눅 22: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럴지라도 오늘은 평상시와 다릅니다.
다음 날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 감람나무 열매를 짓눌러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 관찰력이 예리했던 것 같습니다.
(눅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산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막 14: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막 14: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두고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녔던 애제자 삼인방입니다.
이날도 평상시와 같이 애제자 삼인방을 구별하여 그들만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더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이르자 예수님은 애제자 삼인방도 더 이상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수님은 애제자 삼인방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홀로 동산 더 깊숙히 들어가십니다.

마치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뜰을 거쳐 성소로 그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때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매우 큰 심적 고통을 가지고 계셨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큰 심적 고통을 가지게 하였는가 그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 이러한 큰 심적 고통을 갖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100% 인간인 예수님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초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고민한다는 말은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시간은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보다 어쩌면 더 괴롭고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14: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막 14: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백 번 이해가 가는 기도입니다.

그럴지라도 끝은 하나님 아들답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지나가기에는 선뜻 내키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생애 3 년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은 과연 하나님 아들 아니 하나님 답게 전능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여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셨으며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마침내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이토록 무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으셨으면 천군 천사를 불러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죽음을 고민했다거나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동안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으로 보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데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행 7: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행 7: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행 7: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행 7: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행 7: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참으로 초연했고 고귀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에 결코 지워질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사관을 보겠습니다.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 1: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지만 자신이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여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의 기도를 당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사관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보다 한 수 아래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탄이 당신을 죽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당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저는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이 두려워 죽기 싫으셨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천군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죽이려 하는 로마 병정들을 막아낼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죽음을 면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의도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신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들어 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청을 한 번도 안 들어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째로 하나님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강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하여 사명을 이루어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 의지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당신 아들의 자율 의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싫다는데 억지로 죽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죽는 사명을 띠고 이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지키기 원하셨고 마침내 감당해 내셨습니다.

(히 2: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지 못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에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 22: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눅 22: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할때 천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천사가 동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생각나시는지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에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사탄이 무슨일을 저지르려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을까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에수님으로 하여금 죽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막는데 힘을 더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14: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14: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막 14: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막 14: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 14:41)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홀로 저만큼 나아가 기도하시다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 시험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깨어 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는데 조금 후 예수님이 다시 와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주님이 팔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년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함께 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이 다 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찝어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 제자들 중 유독 베드로만 찝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제자였기 때문에요?
에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곧 큰 시험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큰 소리치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자신은 모르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Key Word 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와 '이제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사탄을 이겼고 이제 인자가 죽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명을 이룰수 있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시험을 주는 사탄을 기도로 물리쳐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이루어내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이루어도 그만 이루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해냄으로써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맞추어져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섹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데는 언제나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를 막아낼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 맡은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